

노후 산단 일대 첨단산업·문화공간...광주 공업지역 새판 짬다

시 기본계획 '중공업' 중심에서 '미래산업'으로...10월 최종 확정 공고 송암산단 일대 등 3곳 산업정비...KT&G 등 2곳 산업관리형...2곳 유보

광주시는 남구 송암산업단지 일대 공업지역에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연계하고 민간 주도 복합 문화 공간 조성 등을 골자로 하는 '2030공업지역 기본계획(안)'(기본계획)을 구상하고 있다. 노후화된 광주 공업지역을 활성화 해 산업을 살리고 경쟁력을 높이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17일 광주시청 2층 무등홀에서 열린 '2030 광주 공업지역 기본계획(안)' 전문가-시민 공청회에서 이와 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용역 결과가 발표됐다.

1960년대 조성된 중공업 중심의 광주지역 산업 구조를 모빌리티 AI산업 등 첨단산업 중심의 산업 기반으로 변화 시키겠다는 것이 골자다.

광주는 대부분 산단중심으로 산업관리와 육성정책이 집중된 탓에 산단을 제외한 공업지역은 시설 노후화, 편의시설 부족, 주거 시설 부족 등의 열악한 환경이기 때문이다.

산단 이외의 공업지역은 산업활동 기반이 약화돼 청년 등이 취업을 기피하고, 낙후된 주거환경과 산업시설의 혼재로 도시환경이 악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좁은 도로와 주차장 부족 등 기반 시설도 노후화 된 것으로 평가됐다.

용역 결과에는 송암·평동산단 일대, 매월유통단지, KT&G 광주공장, 기아자동차, 금호타이어 일대를 비롯해 송암TG(톨게이트) 주변 등 7곳에 대한 현황진단과 관리 방향이 담겼다.

세부적으로 '산업정비형'(산업의 쇠퇴와 지역여

거 불량의 혼재해 전반적인 정비 필요), '산업관리형'(기존산업을 육성 및 활성화), '산업혁신형'(신산업 유치·산업 기능 연계를 통한 산업거점 조성), '기타형'(향후 개발여건에 따라 종합적 검토) 등 총 4가지 관리유형으로 전환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송암산단일대 일대는 산업혁신형과 산업정비형이 동시에 설정됐고,평동산단일대 일대와 매월유통단지 일대는 산업정비형이 적합한 것으로 분석됐다. KT&G 광주공장 일대와 기아자동차 공장은 산업관리형이 모델로 제안됐다. 송암TG일대와 금호타이어 일대는 향후 개발사업을 고려해 유보지역으로 관리하기 위해 기타형으로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제안됐다.

산업단지 현황진단 결과에 따르면 송암산단일대 인근 공업지역(송하동 218-12 일대·일반공업지역)은 자동차 공업사(38.2%)와 공장·창고(35.9%)가 입지해 있고,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은 59.8%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평동산단일대 주변 공업지역(지족동 410-7 일대·준공업지역)은 평동산단과 붙어있지만, 주거지와 공장이 섞였고 소규모 금속 가공 공장이 몰려있다.

매월유통단지 근처(매월동 622-8 일대·준공업지역)는 창고시설이 많고, 20년 이상 노후건축물은 45.5%로 파악됐다. KT&G 광주공장 일대(양산동 330 일대·일반공업지역)와 기아자동차 광주공장(내방동 700-1 일대·일반공업지역), 금호타이어

위 치	면적(km ²)
1 송암산업단지 일대	0.37
2 평동산단일대 일대	0.95
3 매월유통단지 일대	1.13
4 KT&G 광주공장 일대	0.36
5 기아자동차 광주공장 일대	0.99
6 금호타이어 광주공장 일대	0.40
7 송암TG 일대	0.06
합 계	4.26



2030 광주공업지역 기본계획을 통해 재편될 광주 7곳의 공업지역(일반공업지역, 준공업지역 등). <광주시 제공>

광주공장 일대(소촌동 555 일대·일반공업지역)은 단일 공장이 위치해 있는 곳이다.

송암TG일대(송하동 319 일대·준공업지역)는 제2순환도로 노선변경으로 분리된 자투리 용지로 공업지역임에도 오염병원과 단독주택 등 비산업시설이 입지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날 진행된 공청회에서 전문가들은 광주지역 공업지역의 대부분의 공간을 자동차 정비소나 열악한 공장등이 입지해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광주시가 집중해서 육성하고 있는 첨단산업 콘텐츠 분야와 괴리감이 있고, 재정력이 떨어지는 업

체들에 대한 재정 지원대안 구체성이 제시되지 않았다는 점에서도.

광주시는 전문가들의 지적 등을 보완해 최종안을 마련해 10월에 '2030 광주 공업지역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공고할 방침이다.

/정병호 기자 jusbh@kwangju.co.kr

이거 실화? 전남 여행 반값으로

숙박·식당, 케이블카 등 할인...지역상품권으로페이백도

전남도와 시·군이 휴가철을 맞아 반값으로 전남 여행을 즐길 기회를 마련, 여행객 발길 붙들기에 공을 들이고 있다.

17일 전남도에 따르면 도는 '전남관광플랫폼(JIN TOUR) 남도숙박 할인 이벤트'를 통해 전남의 주소를 둔 관광객을 대상으로 1박당 2만(5만 원 이상 결제 시)-4만원(10만원 이상 결제)을 할인한다. 사흘 연속 숙박할 때는 경우 최대 12만원의 숙박비를 할인받게 된다. 전남 사랑에(爰) 서포터즈 가입 회원은 1박당 1만원을 추가로 할인받을 수 있다.

'1+1 블루투어 할인 이벤트'도 진행되는데, 목포 해상케이블카, 담양 죽녹원, 구례 섬진강 스카이바이크, 강진 쥘트랙 등 19개 업체에서 71개 체험상품 티켓 한 장 당 한 장을 추가로 제공한다.

전남관광재단 누리집에서 '워크케이션 반값 할인'도 추진한다. 일(Work)과 휴가(Vacation)를 동시에 즐길 수 있는 상품의 경우 1박 10만원, 2박 20만원, 최대 3박 30만원까지 지원한다.

장성군이 추진하는 '솔솔한 장성여행' 프로그

램의 경우 숙박업소와 식당, 카페에서 지출한 금액의 50%를 지원한다. 지출 금액에 따라 10만~19만원은 5만원, 20만~29만원은 10만 원, 30만~39만원은 15만 원, 40만 원 이상은 최대 20만원을 장성사랑상품권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

완도군은 방문 전 '완도치유페이' 사이트를 통해 사전 여행계획을 제출하면 지출액의 50%를 현금처럼 사용가능한 치유페이(지류상품권 지급 또는 포인트 충전방식)로 지급한다. 지출 금액에 따라 20만~29만원은 10만원, 30만~39만원은 15만 원을 지원한다.

영암군도 이달 말부터 영암군 외 거주자이고 2인 이상 한 팀이 영암에서 10만 원 이상 소비했을 경우 방문 횟수에 따라 차등 지원하는 '영암여행 1+1' 사업을 진행한다.

전남도 관계자는 "전남도도와 시·군이 진행하는 관광·숙박·체험 할인 상품을 잘 활용하면 '반의반값 여행'으로 전남을 온전히 여행할 수 있다"고 말했다.

/김지을 기자 dok2000@kwangju.co.kr

광주시-자치구 소비쿠폰 재원 '5대5' 분담

총 400억원 분담...시, 특별조정금 100억원 지원키로

정부가 지급하는 '민생회복 소비쿠폰'의 지방비 분담비율을 둘러싸고 갈등하던 광주시와 5개 자치구가 분담율을 5대5로 확정했다.

재정난을 겪고 있는 광주시와 기초지자체가 절반씩 지방비 분담을 하기로 하고 광주시가 지자체에 총 100억원의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하기로 한 것이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시는 5개 자치구와 상생협력의 공감대를 이뤄 소비쿠폰 분담비율을 최종

5대 5로 합의했다.

시는 소비 진작과 골목경제 회복을 위한 핵심 정책인 소비쿠폰 지급의 시급성과 시 재정상황을 설명하며 자치구를 설득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소비쿠폰 지방비 분담금 총 400억원을 광주시가 200억원, 5개 자치구가 200억원을 각각 분담하게 된다. 다만 기초지자체의 재정부담을 고려해 광주시는 특별조정금을 지원하기로 했다. 당초 시는 80억원을 제안했으나 협의과정에서

100억원으로 상향된 것으로 알려졌다. 5개 지자체는 100억원 중 40억원은 균등 배분하고 나머지 60억원은 지자체 인구비율로 배분하기로 했다.

앞서 광주시는 민생회복 소비쿠폰 총사업비 중 국비를 제외한 지방비 부담금을 시와 자치구가 각각 절반씩 부담하자는 안을 제시했지만 자치구는 열악한 재정을 이유로 광주시가 80%를 부담하는 안을 역 제안했다.

한편 소비쿠폰 1차 신청은 7월 21일부터 9월 12일까지 진행되며, 광주시민은 1인당 18만원, 차상위계층은 33만원, 기초생활수급자는 43만원을 받는다. 2차 신청은 9월 22일부터 10월 31일까지이며, 소득 상위 10%를 제외한 시민에게 1인당 10만원이 추가 지급된다. /정병호 기자 jusbh@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1700명 복적

광주지역 구직청년과 구인 기업을 연결하는 '광주 청년 일경험 드림 만남의 날' 행사에 청년 구직자 1700여명이 몰렸다.

17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 14일부터 16일까지 사흘간 광주시청 1층 시민홀에서 개최된 '드림 만남의 날' 행사가 성료됐다.

광주에 거주하는 구직청년에게 직무 적성에 맞는 일경험과 급여, 직무역량 강화 교육, 연계 활동 등을 지원하는 '광주 청년 일경험드림'은 광주시의 대표적 청년일자리 사업이다.

올해에는 한국전력거래소, 광주신용보증재단, 한국알프스(주), ㈜무등기업 등 공공기관, 지역 중

소·중견기업, 창업기업, 사회적경제기업, 사회복지기관 등 300여개 드림터가 참여했다.

이번 행사에 참여한 청년 구직자들 중 400명은 '제18기 드림청년'으로 선발돼 올해 하반기 일경험을 지원받을 수 있다. 매칭된 드림터에서 오는 8월부터 12월까지 최대 5개월간 일 경험을 하게 되는 것이다. 선발 결과는 오는 24일 광주청년통합플랫폼, 광주청년 일경험드림, 광주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병호 기자 jusbh@



참고 매매·임대

대 지 920평

건 물 680평 (1·2층)

광주광역시 남구 송하동 127-3
(도로변·육교옆)

문의 062.220.0513
010.3646.2701